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성당
2006년 6월 (예수성심성월)

-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 *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 *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

1. 시작 성가: 207번(주의 성심)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서 읽기: 요한 5,30~40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공지사항 -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칩시다.
 - 견진성사를 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시다.(6월 4일)
 - 첫영성체를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6월 11일)
 - 2007년 본당 30주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 성경 읽기(성경 읽기표에 따라)* 다음 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208번(간절한 주의 사랑)

MEMO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첫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Deus Caritas Est)

제2부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사랑의 실천

우리 시대에, 세계화가 가져 온 긍정적인 효과 가운데 하나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국가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 조직들과 인도주의 단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사회의 연대를 도우며, 이에 따라 자선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가톨릭교회 안에도 다른 교회 공동체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형태의 자선 활동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자선 활동이 널리 조직화된 자선 단체 안에서 단순히 또 다른 하나의 자선 활동이 되어 본래의 정체성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의 자선 활동은 그리스도교와 교회의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 주는 광채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자선 활동은 전문적 능력과는 별도로, 사랑으로 신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그들 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자선 활동은 당파나 이념에서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원칙이며 예수님의 원칙이기도 한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살피는 마음’입니다. 곧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살피서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교의 자선 활동은 오늘날 이른바 각종 권유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거저 베푸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접어 두고 자선 활동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에 대해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하며 사랑으로 드러나도록 할 때를 압니다. 바로 성인의 사랑의 찬가를 모든 교회 봉사의 ‘대현장’으로 삼아, 교회 봉사가 단순한 행동주의로 전락되는 위험을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선 활동에 투신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속주의의 위협에 직면하여,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만나는 생생한 체험은, 자선 활동가들이 한편으로는 마치 하느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당장 하겠다고 주장하는 이념들에 빠지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력과 체념에 굴복하려는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행동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계획을 바꾸거나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모님과 성인들의 모범을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이기심을 물리치는 사랑의 힘과 빛을 하느님에게서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바티칸 통신(VIS), 2006년 1월 25일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증언

- 요한 5,30~40 -

양심(con-science)이란 말은 합쳐진 두 의식을 뜻한다고 한다. 하느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흠없는 양심의 소유자였다. 당신이 “무슨 일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꼭두각시 인형이라는 말씀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이 있으셨다. 그런데 그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이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 이었다.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공자님은 일흔이 되었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을 좇아 그대로 하되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 고 하셨다. 당신의 뜻이 하늘의 뜻에 온전히 일치되었다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뜻이었다.

이를 세례자 요한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과 성서가 증언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해 주셨지만(“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모습을 본 적도 없다.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교구의 교구장이었던 로스 주교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교님은 신학 생들에게 라틴어를 가르치며 자기 자신이 주교라는 티를 조금도 내지 않았습시다. 수도원 안의 변소를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매주 두 번 청소하였는데 이 곳은일을 말년까지 계속합니다. 그 후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반신불수가 되시고 성모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는데 그분의 그 어린 아이처럼 맑은 눈동자, 천상의 빛을 띤 미소, 천사 같은 명량한 마음가짐이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시다. 나중에 병원에 너무 많은 폐를 끼친다 하여 장상이 다시 예수회 수도원으로 모셔가려고 하자 모든 사람이 그분을 자기들한테서 빼앗아가지 않도록 간청합니다. 그리고 미신자였던 어느 의사는 그분의 무언의 표양에 감화되어 그리스도 신자가 됩니다. **하느님의 현존이 주교님을 통하여 드러났습시다.** 말이 필요 없었습시다.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시다. **그분의 삶이 몸의 언어가 하느님을 증거했습시다.**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현존입니다.

<나눔>

나는 생활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 말없이 사랑하십시오 -

내가 그렇게 했듯이
드러나지 않게 사랑 하십시오
사랑이 깊고 참된 것일수록 말이 적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도움을 주고
드러나지 않게 선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행여 마음이 상하더라도 맞서지 말며
그대의 마음을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섬세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사람들이 그대를 멀리할 때에도
도움을 거부할 때에도 오해를 받을 때에도
말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대의 사랑이 무시당하여 마음이
슬플 때에도 말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대 주위에 기쁨을 뿌리며
행복을 심도록 마음을 쓰십시오.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가
그대를 괴롭히더라도
말없이 사랑하며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행여 그대의 마음에 원한이나
격한 분노와 판단이 끼어 들 틈을 주지 말고
언제나 이웃을 귀하게 여기며
묵묵히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 J.갈로 -

